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새해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년간 설교만 하기로 약속하고 강단에 선 것이 새해로 벌써 5년이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언제나 마음 속에 간직해 오고 있는 저의 생각과 계획을 성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지면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1975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목사로서 평생 '하나님과 인간'을 탐구하는 구도자로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지금까지 구도자로서 외로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길이 저에게 평안, 자유, 기쁨의 길이 되었고, 저만이 갖는 유일한 저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구도자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순간도 제 자신이 다 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만의 유일한 길을 걸어오면서 목사로서 저의 삶의 방식에는 몇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목, 대학생을 위한 목회, 신학교, 교회 목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영적 변화와 함께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목사로서 제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작은 '영성 공동체'와 '영적 치유사역'에 대한 내밀한 소명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전에 섬기던 교회(영락교회)를 사임하고 약 일년 간 유럽에서 그 일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주님의교회 목회를 위해 잠시 시간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 역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 순간도 지금의 목회로 저의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적당한 시기에 저의 마지막 소명의 길에 발을 내디디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그러한 생각을 그동안 직접 간접으로 몇몇 분들에게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회에도 저의 뜻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목회 모델을 구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상을 유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할 때에는 제가 장기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여야 그러한 목회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이상의 장기간의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저는 전 교회의 목회를 마지막으로 기존 교회의 목회는 끝내고 다른 유형의 목회적 삶을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는 일은 저의 남은 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 지금 당장 목회를 중단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시작하게 된 교회충족 문제, 후임 담임목사 결정 문제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새로운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 2면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즐겨 사용하는 말처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함 무 즐 음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 34호(격월간)

발행일 2002년 1월 1일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우편번호 138-220

(정신여중·고 교내)

tel. 02-416-5181~2

fax. 02-416-518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rd-church.or.kr>

차 례

1-2

목회자 칼럼 / 담임목사 임영수

2

시론 / 최두순 안수집사

3

섬기는 삶 / 최재경 집사
교회소식

4-7 특집: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조명훈, 공다혁, 한아름, 김영선,
이종은 집사, 박인용 집사

8

기고 / 최은희

9-10

간증 / 김해련

10-11

독후감 / 이정원 B 집사

11-12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덕규 선교사

12-14 특별기고

강정호 목사, 신철범 목사, 김효숙 목사

15

성경 퍼즐, 알립니다

16

신앙 클리닉

시 / 오종세 집사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가

최두순 안수집사(사랑 11구역)



각종 비리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신문을 대할 때마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너무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IMF 사태 이후 상승하던 경제도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정치는 당리당락에만 집착하고 사회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는 잘못된 관행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등, 총체적인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러다가 제 2의 위기가 오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씨랜드 화재 참사 때도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고 로비 사건, 의혹 사건 등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 소재를 캐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온 나라가 소란을 피웠지만, 그때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 참사가 일어나며, 각종 비리, 의혹 사건은 올해도 그칠 줄 모르고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 전반에 팽배한 윤리적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입니다만 우리는 유사한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는 악순환에 아주 익숙해져 버렸다 봅니다.

우리의 국력과 물질 생활은 어느때보다도 놀랄 만큼 커졌고 풍요로워 졌습니다.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월드컵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윤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그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개혁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앞날도 밝아질 수 없습니다.

참다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뒷걸음질 치는 윤리를 회복시키고, 교육은 지식 전달만이 능사가 아닌 인격 함양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질서와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중대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우리 기독교인은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바른 생활 자세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며 사회에 밝고 깊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습과 독단으로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건, 사고 때마다 상당한 사회적 지위나 부를 누리면서도 더 많은 부를 위해 무릎을 꿇고 무너지는 일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을 타하기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슨 기계처럼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를 이끌어갈 기독교인들에게 변화에 대한 결단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변화된 기독교인이 많아야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고 살 만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하지 않고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가면 뒤에 얼굴을 가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 양 착각과 위선 속에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때 새해에 새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장 2절)

(→ 1면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에서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짐 사고의 방식에서부터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흔히 있을 수 있는 적대 감정이나, 경직된 사고, 추측, 오해, 책임전가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보다 성숙된 마음 가짐으로 더 나은 창조적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본향을 바라보며

경조부 최재경 집사(충성 4구역)

봄의 햇살에 노곤한 졸음을 이기지 못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 한복판에 서서 2001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겨울을 지나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우리 경조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경조부원들은 아주 작은 섬김의 자리지만,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나누어 먼곳인들마다 앓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유가족을 위로해 주십사 간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젊은 사람이 상갓집을 찾아 다니는 것을 보시고 교회 어른들께서 뭇 별씨부터 상갓집을 찾아다니느냐고 묻곤 하셨습니다. 제가 경조부를 섬기게 된 것은 나 또한 유가족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의 빛을 쬔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기에 1993년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나를 거쳐 흘러 흘러 더 많은 곳으로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계속 사랑의 빛을 갹아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경조부원들 역시 나뭇대로의 뜻과 사연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음에 한계를 느끼지만, 저희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음에도 이별은 모든 이들을 슬프게 합니다. 그 슬픔에 우리는 함께 울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이를 찬양으로 환송하며 돌아옵니다.

저희 경조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하신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귀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을 했음에도 유가족들의 고마워하는 마음은 너무나 커서, 어떤 때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극진한 대접을 받는게 아닌가 합니다. 어찌보면 그분들의 사랑과 감사가 저희들에게 도리어 힘을 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핵가족시대이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아 허전한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분명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분이기에 한 가족이 되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경조부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보완해 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조부로부터 상이 났다는 연락이 오면 무엇보다도 거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임종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기에 우리의 형편을 봐주시지 않으시니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곳을 다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이른 새벽에 발인할 때에도 저희들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멀리 있는 장지까지도 동행합니다. 이 작은 수고가 유가족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경조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사람 한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각각의 다른 인생을 살았음에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며, 나 스스로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교우들이 천국으로 떠나가는 자리에 제가 있고, 제가 천국으로 갈 때 함께 해줄 교우가 있음에 저는 벌써부터 큰 위로받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 회 소 식

1. 2002년 교구 담당교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교구: 이상훈목사, 희락교구: 김병모목사
화평교구: 홍경환목사, 자비교구: 김원재목사
온유교구: 이승렬목사, 충성교구: 강석영목사

2. 2002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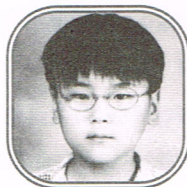
- ◆ 수요성서학당이 수요예배가 됩니다.
- ◆ 주간성경공부가 개설됩니다: 화~금, 오전 10:30~12:00
- ◆ 묵상노트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 ◆ 올해는 홀수 달 마지막 주일과 매 절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를 맞는 소망

조명훈(소년부)



난 사실 새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늘 나에게 새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이어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글을 써야 한다고 해서 새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먼저 새해 첫날이 생각한다. 나는 주님의교회에 다니면서 늘 엄마를 따라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했다. 어른들과 드리는 예배이고 한밤중이다 보니 반은 졸고 반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동해로 여행을 갔기 때문에 첫날에 대한 느낌은 좀 어수선하다.

내년은 나의 띠인 말띠 해라고 한다. 내 띠가 다시 돌아오는 게 참 신기하게 생각된다. 벌써 십이 년이나 살았다. 그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년 2002년은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다.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길을 잘 알려주고, 질서를 잘 지켜서 우리 나라의 친절한 모습을 세계적으로 잘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겼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우리 소년부가 소풍도 자주 가고, 수련회는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또는 교회의 친구들과 보내고 싶다. 내가 속해 있는 글로리엘 공연이나 그 밖의 행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나도 6학년이 된다. 이제 아동부의 최고 학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새해는 나에게 특별한 해이다. 또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을 뻔했는데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새해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

미래가 있는 삶

공다혁(고등부)



1997년 12월 5일. 부모님과 함께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갔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난 후 집에 돌아가야 했지만, 그 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틀쯤 지났을까 부모님의 많은 눈물을 볼 수 있었다. 입원한 지 두세 주가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백혈병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시기 시작했다. 절망이란 말이 생각났다. 그럼에도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고쳐 주시리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이어 병원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항암주사를 맞자 머리카락이 하나 둘 빠졌고, 골수검사를 할 때면 너무 긴장이 되어 땀범벅이 되었으며, 온 몸엔 쥐가 날 정도였다. 곁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힘든 치료과정 중에 졸도하며, 경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렇듯 죽음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겐 소망이 있었다.

1998년 5월 12일. 드디어 최후의 방법인 골수이식수술을 하게 되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나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 골수가 내 몸에서 좋은 세포를 많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 뿐만이 아니었다. 집에선 가족들이, 교회에선 나를 아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다.

그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여전히 일 주일에 한 번 혈소판과 피를 맞으러 병원으로 향한다. 그동안 처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어려운 고비들도 많았다. 그러나 절망이란 말보다는 소망이란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새해는 내게 두려움이나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꼭 고쳐 주셔서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계획하고 싶다.



청년부에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최아름(청년 1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9)

2002년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청년1부 회장으로로서 청년부에 대한 것이다. 부족한 나를 써주시려고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정말이지 흠이 많은 나를 왜 세우셨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가장 낮은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실 것을 믿는다.

먼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더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기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한다. 지금도 청년 1부에는 금요기도회가, 청년 2부에는 토요기도회가 있어서 청년부 지체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고 있다. 기도회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기도의 응답 그리고 삶의 변화들을 함께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한다.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실 것인가! 우리는 나약하고 능력 없지만 모든 큰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큰 선물인지 깨달아 매일의 삶에 기도함으로 그의 지경을 넓혀 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청년부가 되길 소망한다.

둘째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사역 중심, 선교 중심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한다. 현재 청년부에서는 여름 방학마다 국내와 해외 아웃리치를, 매달 첫째 주에는 노방 전도를 나가고 있다.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미약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은혜는 가슴 벅차도록 풍성한 것이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나 또한 변화를 체험했다. 새해에도 아웃리치와 노방 전도가 계속되어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숙되는 귀중한 시간으로 자리잡기를 원한다.

끝으로, 우리 청년부에 보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길 소망한다. 공동체에 새로운 구성원이 받을 들인다는 것,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청년의 때에만 받을 수 있게 같은 또래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과 양육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함께 모여서 같이 아파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주님의 군사로서 훈련되고 양육되는 귀중한 시간을 보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경험 할 수 있길 소망해 본다.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고 말씀하신다. 청년의 때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때이면서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때인가.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거센 파도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고, 주님께서 새해에 우리 청년부에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내년을 준비한다.

새 해를 맞이하며

김영선(청년 2부)



주님의교회 청년부에 나온 지도 7년이 흘렀다. 한참 힘들어하던 때 찾은 청년부에서 그런지 처음부터 나는 청년부 목사님이나 동기들,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이 참 많았다. 대학시절의 개인적인 갈등과 고민들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부터 지금까지도, 힘들었던가 즐거웠던 시간들 속에 청년부가 항상 함께 있었다. 물론 죄의 속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모인 곳인지라 한계가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곳에는 -적어도 나에게는- 기도와 나눔과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있었다.

내가 그 동안 청년부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았나 보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더욱 많이 내 놓을 때인지 청년 2부 '회장' 이라는 '부담스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렇다. 처음에는 부담이었다. 이전에 청년부 임원으로 두 차례 섬긴 적은 있으나 내가 '회장' 이라나... 회장이라면 그만큼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하지만 난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다. 청년부를 이끌거나 대표할 자신이 없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 둘씩 머리 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청년부 회장을 맡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나 어리석은 생각들 가운데 있던 내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42 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던 애굽 땅에 들어가 살기를 고집했던 유다 백성들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보며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정말 내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만을 선택하기를 고집한다면 내 모습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헨리 나우웬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읽으면서도 마음의 부담과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알 수 있었다. 현실 지향적인 자아를 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서 대답하기로 했다. 내게 무슨 '능력' 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무언가 멋있고 거창한 일을 해야겠다는 유혹과 부담을 버리고 나에게 그 동안 많은 힘이 되어준 청년부에게 또 한번 의지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기로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분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서 있게 해주셨다. 이제 하나씩 채워 가실 그 분의 손길을 기대한다.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분주해지지만,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달려 나갔던 마리아처럼 항상 주님을 먼저 만나기를 힘쓰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고 청년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빚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또한 그 동안 나에게 청년부가 큰 힘이 되어준 것처럼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며 기도와 사랑이 있는 우리 청년 2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얼마전 한 친구가 보내 준 전자메일카드에 적혀 있던 글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Just think...

You are not here by chance but by God's choosing.

His hand formed you and made you the person you are.

He compares you to no one else-You are one of a kind...

He has allowed you to be here at this time in history to fulfill his special purpose for this generation.

(번역)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이죠.

그의 손이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의 형상을 만드셨죠.

그는 당신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시죠, 당신은 한 분이니까요.

그는 역사중에 이 시간 이곳에서 당신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셨죠.

그의 이 세대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며

이종은 집사(충성 7구역)



「선생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게 여자친구가 있길 랑요. 그런데 그 애랑 놀러 가고 싶은데요. 엄마가 안된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구 바닷가도 가고 싶은데 말이예요. 허락해 주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쌤님 기도를 믿겠어요.」

저는 중등부 교사 3년 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고민과 걱정이 우리 세대 때는 고등학교 2~3학년 이상이었을 때 하던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사회와 교육형태가 달라져서 예전 중·고등학교 때 바람에 구르는 나뭇잎을 보며 시를 암송하고 서로 문학책을 주고받았던 세대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시나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 얘기, 가요, 개그, 드라마 그리고 학교생활이 재미없다는 화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들이 하루종일 손에서 놓지 않고 손가락 유



회를 즐기는 핸드폰(손가락이 날아 다닐 정도) 문자판의 내용은 단순하고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컴퓨터에 빠져서 중독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자급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일수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책을 산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미 고전이 되었구요.

이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면서 싸움도 못하는 아이들을 폐인이라 부르며 왕따를 시킵니다. 이들에게 선과 악의 구별 기준은 모호하고, 고무줄처럼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장래 희망은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 많이 벌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 답은 '그냥 뭐든지 하지요' 입니다.

중등부 교사 3년 만에 이제 이 아이들 속을 들여다보면서 '난 안되겠다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교사를 그만 두리라'고 다짐합니다. 11월 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부터 생각이 달라져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맡기신 영혼들을 내가 잘 인도해 주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었는가? 이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이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가? 일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때에 문책을 받을 나는 아닌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 일년은 정말 잘해보리라, 기도하며 사랑하리라, 나는 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반 아이들과 헤어질 준비, 새로운 아이들과 만날 준비, 새해 계획, 수련회 일정, 프로그램 계획 등등...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또 일년을 연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일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중등부 우리반에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박인용 집사(희락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정에서는 화목과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 시간의 마지막을 진리의 깊은 맛을 보며 지내고자 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세월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한탄뿐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며,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로운 용기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의 헛된 시간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후회와 통한에만 사로잡혀 용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한 거창한 구호와 큰 결심보다는 지금,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일부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랑하듯 계획하기보다는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취를 매 순간 확인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까를 생각하면서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기심과 오만에 사로잡혀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내 소유물처럼 내 뜻대로 양육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앞으로의 일년을 주의 뜻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늘 곁에 계셔서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슬픈 위로가 내게도 같은 위로가 되지 않기를 비웁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나는 지금 '하프타임' 중

최은희(평강교회 출석)



「치유와 성장」 화요강좌를 듣고 나서

은행잎이 가장자리부터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 잎새를 하나 둘, 아니 이제는 무더기로 떨구고 있다. 다음 계절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겠지 하며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 나는 한 자매로부터 화요강좌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 강의 내용도 평상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에 쉽게 따라 나갔다. 작년에 나는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목회」를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늘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 교회가 헌금의 50%를 착실하게 사회와 나누고 있고, 교인이 늘어날 때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합한 예배 장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 결국 정신여고 강당부지에 엄청난 일을 하게 하였고, “주님의교회가 정신여고를 섬기는 봉사자로서만 이곳에 존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대목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정신여고 출신으로서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강당과 기념관이 세워지기를 기도한 사람이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멋지게 이루셨으니 감사가 한없이 흘러 나왔다. 언젠가 모교를 방문하면 교회에 들러 보리라 마음먹었는데 여름과 가을 동안 매주 오게 하셨으니 강의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더불어 나의 여고시절을 추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미리 도착하여 고등학교 건물 앞 벤치에 강좌를 알려준 자매와 나란히 앉아 옛날호떡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던 날이 지금까지 새롭다. 그때 난 잠시 동안 십일자 머리로 길게 땀아 내린 나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가을날 코스모스 꽃잎을 책갈피에 정성스럽게 꽃던 소녀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체육대회가 열리면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저 넓은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내 모습이 그려졌다.

정문 쪽 아시아공원은 여름철에는 수박밭이었고, 그 옛날 나무터가 있는 지역임을 증명하듯 모래밭에서 땅콩이 자라던 곳이다. 수박 파티가 있게 되면 옆 반과 함께 나누었기에 수박 파티는 한 동안 계속되었다. 지금 나의 후배들은 이러한 낭만을 모르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학교 학생들이 누리지 못하는 중

은 시설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음은 감사할 일이다. 나 또한 신앙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바른 인생관을 세울 수 있었다. 100년을 훨씬 넘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여름날 밀알수련회로 모여 방과 후에도 재잘거리던 그들의 발랄함은 입시에 찌든 학생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다.

평상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던 중 하나님께서는 치유선교학에 관한 강의를 듣게 하시고 이번에 주님의교회 화요강좌로 부르셨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를 시작한다”는 말을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인용하셨는데, 홀려간 날들을 돌아볼 때 아쉬움은 남지만 후회는 아니며 여전히 꿈 많은 소녀처럼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

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내면 세계를 더 다지게 되었고, 영적인 정원사로서 다른 사람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잘 돌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혼자이기에 남들보다는 더 오랜 청년기를 보내면서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 ‘하프타임’을 갖는 사람의 자세로 이 강의에 열중하였다. 실제로 내 인생이 어떤 계절이건 상관없이 마음만은 늘 봄의 계절을 살고 싶다.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때로 몰려오지만 내 본래의 평온함을 깨지는 못할 것이며, 내 삶의 ‘작전 시간’을 잘 보내면 이후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본다. 그리고 다가오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쁨으로 기다려 보게 된다.

붉게 온 산이 타들어 갈 때
내 마음의 잎새도
한없이 붉게 물들고만 싶었습니다.
철 따라 나뭇잎 땅에 떨어질 즈음,
어제를 붙들고 싶은 아쉬움에
마음의 세마포 입으면
어느덧 우리 앞에 고개 내민 성탄의 불빛이
내일의 소망을 살포시 비추어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이 세상의 창조물이 피었다 지고 그 피조물중 하나인 내가 숨쉬며 이 땅에 살고 있다. 내 인생의 남은 계절을 아름답게 향유한 후에 죽음 너머 주님과 함께 머무를 집으로 데려가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의 유일한 생의 역사를 위해 더 힘껏 뛰리라 마음 먹는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미션 스쿨과 교회와의 진정한 연합이 이후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질병을 통해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김해련(충성 6구역)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라.

나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 집에서 딸 다섯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너무도 자주 싸우셨고 나는 그 싸우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다 자라지도 않은 나이에 죽음을 늘 생각했다. 안정되지 않은 가정 속에서 자란 탓인지 겁이 너무 많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몸이 굳어지곤 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투실 때마다 늘 포근하게 감싸주던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고 3이 되어 대학을 결정해야 할 무렵 둘째 언니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아! 어린 시절 늘 포근하게 감싸주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언니의 전도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고 경건의 훈련과 말씀에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닌 나는 신비한 체험을 해 보고싶어 기도원도 가보고 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삶이 힘들어질 때만 주님을 찾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은 늘 나에게 크고 작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곤 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고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계속된 임영수목사님의 가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의 막연한 두려움과 참을성이 없는 성품들이 치유하시는 주님을 통해 치유되어지기를 기도하며 15년 동안의 나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내 삶에 경건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나는 영성과 관련된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고 그 책들 속에서 주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들을 맞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0월 19일 직장에서 회식한 이후부터 속의 불편함이 지속되어서, 11월 8일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임파선 및 췌장까지도 전이된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겨우 18개월이 된 딸 예린이와 31개월이 된 예진이, 주말 부부에 맞벌이를 하는 막내딸을 위해 일흔의 나이에 집안 일을 돌보아 주시던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니 온몸에 말할 수 없는 마

음의 고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고난 또한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리 아 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늘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골방에서 나를 따듯한 손길로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며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

그 날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여 교구 식구들에게 알리고 기도부탁을 드렸다. 그 후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강석영목사님이 집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다. 그 예배에 칠십평생을 예수님이 없이 사셨던 시부모님(결혼이후 늘 내 기도의 제목이었던 시부모님의 구원)도 함께 하였고, 그 예배 이후 며느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일마다 가족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 때 목사님과 구역식구들이 함께 모여 안수하며 간절히 주님께 수술이 없이도 완치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셨다. 어찌나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지 지금도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속 깊이 몽클한 사랑이 전해져 온다.

이 글을 빌어 목사님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작년 72구역의 교구 식구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예배 삼일 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예상 외로 임파선과 췌장까지 전이가 된 줄 알았던 위암이 다행히도 전이가 되지 않았고, 위만 3분의 2이상 암이 생겨서 위를 완전히 절제해야 했다. 다행히 예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끝났고, 합병증도 없이 하루가 다르게 점차 회복이 되어져 갔다.

현재 나는 위가 완전히 절제되어 식도와 장이 연결된 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위가 있었을 때의 삶보다 현재의 삶에 더욱 감사를 드린다. 주님은 질병을 통해 용서할 수 없었던 친정아버지와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셨다.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여 나와 다른 행동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에게 이 고통 중에서 늘 나를 지키시고 내 옆에 계시던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며 로마서 8장 35절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

우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질병의 고난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였고, 고난의 공식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할 때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독 후 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정원 B 집사(사랑 5구역)



정신 장애인을 위한 라르쉬 공동체 중 하나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원목으로 있던 헨리 나우웬은 빌 반 뷰렌과 함께 워싱턴 디씨에 있는 인간 개발 연구소(Center for Human Development) 15주년 기념 행사에서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헨리 나우웬은 25년간 성직자로, 학계에서 목회 상담과 목회 신학, 기독교 영성 신학 교수로 20년을 지낸 후, 깊은 내적 위협을 경험하였다. 그는 이같은 영적 죽음을 일컫는 적합한 심리학적 용어로 '탈진(burnout)'의 와중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했던 최고의 지성인 하버드에서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보잘 것 없고 숨겨진 삶을 사는 라르쉬로 옮겨 살게 되었다.

라르쉬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에게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복음서의 두 가지 사건 곧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마 4:1-11)과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신 사건(요 21:15-19)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거나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의 삶의 진정한 근본인 그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께 닦였던 첫 번째 시험은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이었다. 즉 돌들을 빵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이 요구에 예수님은 '말씀 선포'라는 자신의 사역을 고수하셨다.

기독교 사역의 가장 핵심된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다. 미래의 지도자는 예수로 성육신하신 곧 '육신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크리스천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으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묵상 기도의 훈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아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서 나온 진정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받았던 두 번째 유혹은 뭔가 굉장한 열렬한 환호를 안겨다 줄 그런 일을 해보라는 유혹이었다. 경쟁사회의 분명한 한 측면인 스타 의식과 개인주의적 영웅주의는 교회에서도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 목회란 공동체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의 경험이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인 것이다.

미래의 크리스천 지도자는 깊은 기도에서 몰두한 신비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기꺼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목회자들도 그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지체이며, 공동체의 사랑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상처 입은 자아를 포함한 그들의 존재 전체로 사역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받았던 세 번째 시험은 힘에 대한 시험이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 등의 시험에 굴복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행한 바로 그 '힘' 때문에 십자군도 생겨났고, 종교 재판소들이 설립되었고, 인디언들을 노예화하였으며 11세기의 교회 대분열, 16세기의 종교 개혁, 20세기의 거대한 세속화 등의 큰 위기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신다. 기독교 지도자의 길은 이 세상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상향적인'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는 '하향적인' 길인 것이다. 그것은 힘과 지배력의 리더십이 아니라 겸손의 리더십이며 거기에 고통 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한국 교회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리더십을 회복하여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며 그들의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리더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베트남에서 온 편지

김덕규 선교사

베트남 사이공에서 남쪽으로 약 130Km 정도 가면 빈롱시가 나옵니다. 그곳은 한아붕사회가 지원하여 지어준 유치원이 두 곳, 빈롱시 청소년 활동센터에 컴퓨터 교실을 열어 준 곳이 한 곳 그리고 자력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가난한 노인과 이이들이 있는 가정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시작한 곳입니다.

이제 이곳은 눈을 감아도 "이쯤이면 어디이고 어느 정도 더 가야 될 수 있는곳이 나오고..." 등 짐작이 되는 길입니다. 이곳 빈롱시는 인구 100만이 살고 있는 빈롱성의 중심지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지요. 그러나 가난과 함께 사는 것을 낙으로 알고 있는 듯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1993년) 이곳을 가는 길은 가관이었습니다. 오래 전 그러니까 1975년 공산화가 되기전 남쪽 월남에서 땀은 길입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된 후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보수가 되지 않아 겨우 길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6개국을 거쳐 약 1,400Km를 내려오는 메콩강은 이곳 강 하류인 베트남에 홍수가 없어도 흘러 내려오는 강물로 인해 범람할라치면 길이 물에 잠겨 통행할 수가 없고 있다 해도 물속에서 길을 찾아 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소리도 없이 차 오르는 물을 불라치면 소름이 끼치기도 한답니다. 잘 지어진 건물들이야 그런 대로 물이 차 올라도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난한 이들은 물에 집이 주저 앉을까봐 야자수로 엮은 지붕과 기둥 몇 개 박힌 보금자리를 안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범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이 새롭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진흙을 높이 돋우고 길을 넓혀서 잘 닦여진 2차선이 들어선 것입니다. 움푹 파여진 곳도 좁아 아슬아슬하게 차들끼리 스치듯 지나가던 길 폭도 제법 넓어진 것입니다. 남부 메콩강 일대의 경제를 잇는 주요 일번 도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지요. 130Km의 거리

가 4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 빠르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수된 길이 2차선 도로입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그리고 손수레·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 등 온갖 종류의 차량들이 한데 어우러져 달리는 길이 되어 버려 여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다녀올 때마다 사고를 목격하지 않을 때가 거의 없을 정도이니깐요. 최근에도 그곳에 다녀 오면서 오토바이끼리 부딪혀 서로 나동그러진 모습을 몇 건이나 보았구요, 올라오는 길에는 화물차끼리 부딪쳐 한쪽 도로를 막아 버려 차량이 얼마나 길게 멈추어 섰는지 그 행렬이 두렵게까지 느껴졌답니다.

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명절때가 생각났는지 모르고 "이속에서 살아야 하는 구나" 하는 마음에서인지, 사실 이곳에서 길을 만들려면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면 정말 식은죽 먹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저 평야이거든요. 사이공 이남으로 나즈막한 구릉 하나 없는, 길게 깔려 있는 평야입니다. 문순기후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습도 많은 기후로 인해 논농사 짓기가 딱 알맞는 지역이기에 산을 뚫고 골짜기마다 교각을 세워 고속도로를 놓는 우리의 실력이라면 이곳에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라는 것입니다. 8차선 도로가 그냥 쪽쪽 땡땡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긴 GNP 400 달러인 이곳의 실정으로는 마음은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지난 추석명절 때 주님의교회에서 베트남의 저희 선교사들에게 이곳에서 길 만들며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가시적인 효과대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곳에, 대관령을 뚫고 죽령을 뚫고 길을 만드는 그런 한국 교회의 도로 건설법(?)으로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이곳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명수배자처럼 쫓기듯 살아가기 쉬운,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멋진 길을 가르쳐 주고 가셨습니다.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도 함께 한 자리였는데 이구 동성으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깊이 머리에 남는 그리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인사받는 제가 송구했으니까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그때 그곳에 갔던 분들끼리 그때의 은혜를 새기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곳 현장에 접목시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임영수 목사님 그리고 강석영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저희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동안 우리들끼리 그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갖기는 이곳 부
임후 8년만에 처음이었고, 게다가 말씀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
에 대한 대안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일인지요. 정말 감사
했습니다.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인격이라고 늘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것인지를 몰랐는데 말입니다.

그때 마지막날 밤 이런 기회가 없었던 저희 선교사들이 밤늦
도록 달랠시내를 다니며 쌀국수도 먹고 오리알도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참 신이 났었지요.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
것을 자연스레 느꼈습니다. 물론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인 것을 느꼈습
니다. 이곳 8천만 베트남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영접치 않는 안타까움을 주님께
올려 드렸지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런 이곳, 철저히 말씀을 봉쇄하려는 이곳, 아직도 전쟁의 흔적
이 남아 있어 복구되지 않은 고통, 특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충
부리를 겨누고 서로 쏘아야만 했던 마음의 황폐함이 아직도 깊
게 골이 젖어 있는 이곳...

조용히 주님께 기도 드리면서 왜 주님의교회 식구들이 이곳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고
픈, 이런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들 가슴에 느끼게 하
고, 눈으로 보게 해 주고픈 갈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래 많은 시간 그것도 명절에 적지 않은 비용을 즐겁게 사용하며,
이 땅을 사랑함을 보았습니다.

참 평안을 모르고
달려 왔던 수많은 날들
그 날들이
억울하여
던져 버렸던 삶들을
회수하고픈 번뇌에
괴로워할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버리는 수렁속...

그 날들을 보상해 주고파
사랑으로
그 허전함을 채워 주고파
주님은 십자가 아픔을 참으셨구나.
오늘

그
치솟는 주님 사랑을
우리과 함께 하고픈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임도 모르고
저렇게들
이 땅에 와 있구나...
우리는
오늘 이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본다.



특별기고

주님의 교회를 떠나며

강정호 목사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고, 돌을 갓 넘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
학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 오기 전 저는 주님의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4년 6개월 동안의 엄격한
(?) 목회 훈련을 거친 후의 부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보다 새롭고 보다 선진적인 목회를 배우고 싶
은 열망으로 주님의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에서도 잘할 수 있으리라 했던 자신감은 부임 즉시 산
산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선진 목회를 배우고 싶은 열망은 이
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목회적인 관점과 사고와 방법, 그리고 교회의 관
행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이전의 목회 경험과 방
법은 모두 버려야 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저는 이재철 목사님과 임영수 목사님께 목회
를 배울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두 분 담임 목사님께 배우고 훈련 받으면서,
그리고 교우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

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께서부터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른 목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 목회를 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두 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 교회와 교우님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께 드리는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우님들로부터는 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분들이 목회자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처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주님의교회에서 배우고 훈련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교우님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저에게는 참으로 큰 복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함께 기뻐하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 애쓰던 여러분들을 떠난다는 것은 저에게 큰 고통입니다.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많은 사람 베풀어주신 교우님들을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교우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6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진정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특별기고

산타클로스를 수놓은 양말

신철범 목사



지난 주 구역예배에 참석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조그만 선물을 쇼핑백에 담아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쇼핑백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도록 손수 만드신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담을 수 있는 예쁜 양말 두 켤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만들었는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작은방에 있는 아이들의 두 집(종이박스를 주워다가 큰애와 작은애가 들어가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종이 집)벽에

하나씩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정윤아. 혜운아, 너희들 있잖아 잠자기 전에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거라, 그러면 예수님 생일인 크리스마스 날에 산타할아버지가 이 양말 속에 네가 좋아하는 선물을 갖다 주실거야”

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기도 안 해도 산타할아버지는 선물을 갖다 주실거야(뭣이라, 기도를 안해도 된다고야? 네 아빠가 목사 맞아?).”

“그래 그럼 너는 무엇을 갖고 싶은데?”

“응응, 자전거, 피터 팬, 물 나오는 소꿉놀이...”

큰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선물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그렇게 많이? 그 많은 것을 다 갖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겠다. 정윤아.”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기도 안 해도 산타할아버지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다 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

“응, 노래도 있잖아,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그러니까 산타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

아이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의 귓가에는 계속해서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산타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

.....

나는 주님의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께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빛을 졌는데, 지난 6년 동안 성도님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는가?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야, 교우님들이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함줄함울’ 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송구스런 마음이 제 눈앞을 뿌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머금고 있는 눈빛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떠나면서 작은 소망을 하나 품어 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지난 6년간 제가 주님의교회에 쏟은 사랑과 정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그것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성도님들의 가정에 산타클로스를 수놓은 양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건강함, 행복함이란 선물이 듬뿍 담겨지길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에 대한 감사로 내일을 바라보며

김효숙 목사



가끔 교회로 “부목사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온다. 그럴 경우 내 전화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동료 교역자들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만 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를 받으면 이내 상대방의 미심쩍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부목사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여성이 부목사일리 없다는 추측의 목소리!).” 그럴 때면 “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부드러운 억양으로 안심시키고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기까지 기다리게 된다.

처음엔 타인의 이해를 구해야만 하는 과정을 인내하기 힘들었고,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서툴렀지만, 어느새 익숙한 삶의 부분이 되었다.

사실 첫 서원기도를 드릴 때부터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시대는 여성목회자를 필요로 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남성목회자들의 가결로 여성목사 안수가 통과되었다.

이어 주님의교회 당회와 성도님들의 지지 속에 최연소 여성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된 지난 세월들은 나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따라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었겠는가! 부족하나마 여성목사로서의 사역을 일단락지으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특별한 사역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지혜자의 길을 소망해 본다.

잠언을 읽다가 문득 지혜로운 삶에 대해 말하는 잠언의 마지막 장이 지혜로운 여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새삼 놀랐다. 하나님께선 여성을 지혜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신 것은 아닐까...

한편 여성목사로서의 회한만이 아니라, 교육담당 목사라는 직책이 가져다 주었던 기억들이 남다르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일이 떠오른다. 심하게 입덧을 한 것

은 아니지만, 어느 날은 눈처럼 하얀 백설기가 먹고 싶었다. 백설기가 먹고 싶다는 말에 남편은 부리나케 집 앞 시장에 나가더니 백설기가 아닌, 팔시루떡을 사왔다. 웬 팔시루떡이냐고 묻자, 백설기보다는 팔시루떡이 훨씬 더 영양가도 높고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다는 것이다. 그때 남편의 성의가 고마워 그것을 먹긴 먹었지만, 먹지 못한 백설기 생각이 오래도록 남아 있다.

교육의 현장에 설 때마다 남편과 나의 입장이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입장으로 뒤바뀌어 팔시루떡과 백설기 사이의 갈등은 그침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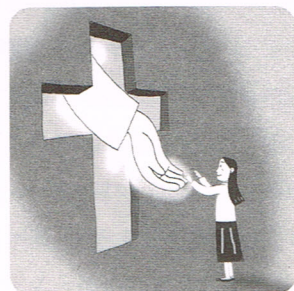
아이들이 원하는 백설기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팔시루떡! 배고픈 아이들에게 백설기가 허기를 달래주긴 하겠지만, 팔시루떡만큼 영양가가 있겠는가 하는 끊임없는 물음 속에 억척스러운(?) 엄마의 모습으로 교육 현장에 섰던 지난 세월들이다.

후회 없을 만큼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했던 지난 세월들, 팔시루떡을 주는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보다도 내가 모성을 지닌 여성이란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녀 교육이 어떻게 여성만의 몫인가’ 라는 외침은 균형을 잃어버린 가정 교육의 현실을 빔대는 말이지만, 여성들의 몸에 배어 있는 사랑의 욕구를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세월들을 기초로 평생 교육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다져본다.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사역을 다짐하는 이 시간, 작은 지면을 빌어 지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해주신 교회의 어른들과,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성경퍼즐 지난호 정답

■ 가로

1. 이스마엘 3. 영광 5. 대속물
6. 레아 8. 들보 11. 엠마오
12. 어린양

■ 세로

2. 마므레 4. 광대 7. 아들
9. 보좌 10. 고린도

■ 가로열쇠

4.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종을 구원하시기를 간청했던 마을은?
(눅 7:1-10)
5.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는? (누가 1: 26: 38)
7. 구약성경 중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로서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을 상징하는 책은?
8. 세례 요한이 전도를 시작할 무렵 유대의 총독은? (눅 3:1)
9.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은?
11.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막 14:8)
13. 예수님의 수의는? (눅 23:53)

■ 세로열쇠

1.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를 전파하라' (눅9:60)
2.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는? (스가랴 4:8-10)
3.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요 20:1)
6. 사무엘의 아버지는? (사무엘상 1:19-21)
10.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눅9:48)
12. 미움은 다름을 일으켜도 ○○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10:12)
14. 히브리서에는 새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리라고 기록되었나요? (히 8:10)

■ 정답 보내주신 분

최지명(충성 4구역), 김금숙(충성 4구역) 께서는 교회사무실에서 선물(기독서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정답을 아시는 분은 2월 3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신 분 가운데 세 분께 예쁜 선물을 드립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416-5181)

알 립 니 다

함줄함을 출판부에서 알립니다.

함줄함을 출판부에서는 성도님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시론, 수필, 제언, 시, 감상문, 간증 등의 원고를 기고하시는 분의 사진과 함께 2월 3일(주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김완중 안수집사).

■ 질 문

저는 시골에 있는 작은 기독교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와 저로서는 명쾌한 답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은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된 후에 죄를 범했을 경우 다시 죄인이 되는가요?

의인이 된 후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요컨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한 번 시인한 사람은 의인이 되어 모든 죄(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의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 답 변

우리는 종종 시인 '고백' 이 말의 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시인 '고백한다' 는 것이 단순한 말의 시인 '고백' 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이 시인 '고백' 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시인 '고백' 했으면, 이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분의 길을 내 길로 삼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뒤따라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시인 '고백한다' 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죄인' 또는 '의인' 이라는 표현은 주제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죄인' 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의인' 을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 즉 구원 받은 자로 규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의인'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즉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실수로 다시 죄를 짓더라도 그가 '죄인'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거나 그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의인' 이지만 죄로 얼룩진, 죄로 더러워진 '의인' 입니다(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수로 지은 죄가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지는 못하지만, 즉 그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죄는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도 회개하여야 합니다. 다

시 깨끗해져야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일단 시인 '고백을 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학생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폭 넓게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잘 정리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필요한 지혜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

지 하 철 찬 송 가

오종세 집사(화평 5구역)



캄캄한 굴 속 어둔 세상 달리며
교수대 밋줄처럼 빈 손잡이 허공에서 춤추는데
쇠가 쇠를 스치는 스산한 쇠소리에
나른하게 반쯤 잠들어 있을 때
통로문 열리며 왈칵 찬송가 쏟아져
눈먼 노부부 주춤주춤 다가온다.
그늘진 눈에 적막강산 막대 짚고 길을 찾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
잠긴 눈 반쯤 뜨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찬송가 머뭇머뭇 꿈 속으로 지나가며
지든 손에 동전 그릇 가난한 마음 담아내니
떨어지는 동전 몇 닢 그릇에 남고
떨렁이는 동전 소리 가슴에 남아
잠긴 눈 반쯤 뜨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
저쪽 통로문 열리고 또 닫히니
그 눈먼 노부부 사라져 보이지 않네.
언젠가 주저하며 그 문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캄캄한 굴속 어슴푸레한 잠에서 깨어날 것을